

『張守果傳』의 형식적 특징과 주제의식

정슬미*

1. 서론
2. 『張守果傳』의 서사 구조
3. 『張守果傳』의 서사 특성
4. 『張守果傳』의 주제의식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장수과전』의 서사 구조와 서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장수과전』의 서사 구조로는 ‘말로 겨루기’와 ‘속이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특성으로는 전, 애정전기 소설 등 몇몇 장르의 패러디와 백화소설의 창조적 수용을 들 수 있다. 『장수과전』의 작가는 이와 같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하면서 유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지적(知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장수과전』은 풍자성이 짙은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풍자의 대상은 해체되어 가는 신분제에 집착하는 비루한 인물 장수와 뿐 아니라, 그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군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소인배들로 가득한 세계를 묘사하는 한편 이들이 즐릴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비정한 사회와 속물적 세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단국대학교.

이처럼 『장수과전』은 시종 유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세상의 밝은 면보다는 비정하고 지지분한 모습들을 조명하면서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야담계소설은 물론 동시대의 풍자소설들과 변별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그간 축적되어 왔던 동아시아 서사의 다양한 성과들을 다채롭게 활용하면서 주제의식을 심화시킴으로써 야담계 소설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핵심어: 기리총화(綺里叢話), 장수과전(張守果傳), 풍자, 19세기 조선, 리얼리즘, 백화소설, 몰락양반, 속물주의.

1. 서론

본고는 『장수과전(張守果傳)』의 서사 구조와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문예성과 주제의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과전』은 기리(綺里) 이현기(李玄綺: 1796~1846)가 1825년경에 편찬한 『기리총화(綺里叢話)』에 실려 있는 한문 소설로서, 과일나무를 지키며 생계를 꾸리는 몰락양반 ‘장수과’가 활터의 한량들에게 빌붙어 먹다가 그만 미움을 사 그들의 모략으로 곤란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현기는 그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으나 주로 서울에서 활동한 소론 명문 집안의 자제이다.¹⁾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생을 마쳤으며, 현전(現傳)하는 저서로는 『기리총화』가 유일하다.

『기리총화』에는 잡록, 소화(笑話), 시화(詩話), 인물 일화, 야담계 소설 등 다양한 글이 섞여서 실려 있는데,²⁾ 특히 야담계 소설은 상당수가 『청구야담(靑邱野談)』에 전재(轉載)되는 등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이 많다.³⁾

1) 김영진이 밝힌바 이현기는 전의(全義) 이씨로 인조 때의 공신 이행원(李行遠: 1592~1648)의 6대손이다. 소론 명문가로서 다른 소론 명문가들인 청송심씨, 동래정씨, 창녕조씨, 풍산홍씨, 달성서씨, 풍양조씨, 파평윤씨 등과 인척을 맺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이형회(李亨會: 1760~1818)로서 금구현령(金溝縣令)과 삼산군수(三山郡守)로 재직한 바 있고, 형은 이현위(李玄緯: 1793~1884)로 을서로 관직을 지냈으나 이현기는 소과(小科)도 하지 않았고 관직을 한 기록도 없다(김영진, 『『기리총화』에 대한 일고찰-편찬자 확정과 후대 야담집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28, 한국한문학회, 2001, 323~325면).

2) 김영진, 위의 논문, 328면.

예컨대 노비가 ‘신분이 천하다고 남아래 굽히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거나, 역사 속의 인물이 나타나 북벌론의 허위성을 문제 삼는 등 “정치 사회 및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번득이”⁴⁾는 작품들이 다수 실려 있는 것이다.⁵⁾

그런데 『장수과전』은 이와 같은 문제작들 속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작품이다. 야담계 소설의 주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돌출되는 면모가 있으며, 특히 형식에 있어서 실험적 시도들이 보여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우선 10,000여 자(字) 정도의 분량으로 통상적인 야담계 소설에 비해 편 폭이 대단히 길며,⁶⁾ 백화체를 전면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새롭다.⁷⁾ 또한 전기소설이나 중국 백화소설 등 다채로운 양식의 문예 언어가 재담이나 설화 등 구비 문학과 조화롭게 섞여 있다. 즉 상당히 긴 분량을 창작적 수법으로 엮어나가는 작가의 솜씨가 돋보이는 문제작이지만,⁸⁾ 비교적 근래에 학계에 공개되어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⁹⁾

다만 일찍이 선행 연구에서 작품의 핵심적 특징들을 간략하게 지적함으

3) 임형택은 『기리총화』 소재 작품들이 빼어난 이유는 1) 야담에 기초하여 야담적 수법을 채용하되 경묘한 필치로 엮어 간다는 점, 2) 정치·사회 및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번득인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임형택, 『『기리총화』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학사연구』11,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같은 해 정명기도 『기리총화』는 3대 야담집에 못지 않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정명기, 『야담연구를 위한 한 제언』, 『열상고전연구』10, 열상고전연구회, 1997).

4) 임형택, 위의 논문, 282면.

5) 이상 『기리총화』에 대한 사항은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대동문화연구』58, 대동문화연구원, 2007, 20면) 참조.

6) 『장수과전』은 서사의 뒷부분이 결락되었으므로 실제 모습의 편폭은 더 길 것이다.

7) 『장수과전』은 인물의 대화뿐 아니라 서사 진행에 있어서도 백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백화문을 도입하는 방식은 이전 시기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김수영,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 수용 양상』, 『국문학연구』29, 국문학회, 2014, 170~171면).

8)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기리총화』를 통해 야담에 대한 인식을 다소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지하듯이 야담은 ‘구연화’와 ‘기록화’의 두 단계를 과정을 거치는데, 기존에는 작가의 창작적 개입보다는 ‘구연화’ 단계가 적극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리총화』의 존재는 야담 작가의 작가의식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장수과전』은 그 중에서도 실험성이 강한 창작적 작품이다(임형택, 앞의 논문, 2007, 16~17면).

9) 『기리총화』 자료 자체는 1997년 학계에 소개되었으나(임형택, 『『기리총화』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학사연구』11,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장수과전』은 임형택이 추후에 발견한 이본(異本)에 수록되어 있어 2012년에야 그 모습이 공개되었다(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태학사, 2012).

로써 다음의 제반 특징들이 밝혀졌다. 먼저, 『장수과전』은 ‘주인공 망치기’ 서사구조로서 성장소설의 전도형이자 ‘획절형’에 속하며, 애정전기소설의 역설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배비장전』과는 유형적 상동성이 있지만 풍자성이 짙어 그 계보나 성격이 다르며, 중종반정(中宗反正)의 공신들에게 타락하여 인물을 설정한 점, 백화체 사용과 평어가 삽입된 점이 다른 작품과 변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다.¹⁰⁾ 이와 같은 고찰은 『장수과전』을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본 논문에 시사해준 바가 크다.

한편, 『장수과전』을 전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나, 몇몇 대목의 주요한 소설적 기법에 주목하여 작품에 현장감이 구현되는 원리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먼저 『기리총화』 전체를 다룬 석사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장수과전』을 다루었는데, 특히 인물과 사건의 형상화 방식 등 작가의 소설가적 필치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장생, 류순정(柳順汀), 신진황(申晉璜), 최랑, 매과 등 각각의 인물들은 독자성을 가지며, 그들의 갈등 양상은 입체적으로 그려진다.¹¹⁾

다음으로, 근래 『장수과전』을 ‘소설의 백화 수용 양상’ 연구의 일환으로 다룬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앞선 시기의 소설들에 비해 『장수과전』이 백화문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구어(口語)의 기분을 냈음을 밝히고, 『장수과전』이 높은 수준의 백화문을 구사한 것은 백화소설의 열독(熱讀)과 같은 19세기의 분위기와 본래 구어적 속성을 지닌 야담계 소설 장르의 내적 계기가 결합된 결과라고 보았다.¹²⁾

이상의 선행 연구는 『장수과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특질들을 상당 부분 해명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장수과전』의 소설적 기법을 비교적 면밀하게 검토한 데 비해 그 주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었다. 이는 물론 이들 연구가 개별적인 작품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서, 오히려 『장수과전』에 갖추어진 서사적 완결성과 디테일, 실험적 시도들이 그만큼 주목을 끌 만한 것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수과전』에는 비슷한 시기 창작된 다른 어떤 한문소설보다도 냉철한

10) 임형택, 앞의 논문, 2007, 22면.

11) 이승현, 『기리총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9~81면.

12) 김수영, 앞의 논문, 168~172면.

풍자정신이 담겨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작품의 서사 구조와 서사적 특성을 살피는 동시에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이 어떻게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지도 살펴 보려고 한다. 이에 작품을 이루는 서사 구조를 살핀 후, 『장수과전』이 전(傳), 애정전기소설, 명청소설(明清小說) 등 몇몇의 인접장르를 변용하거나 수용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밝히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2. 『장수과전』의 서사 구조

2.1. 말로 겨루기

장수과는 빈곤한 형편 탓에 나이 마흔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처지로, 한시 바빠 결혼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때문에 활터 한량들의 모임에 기식(寄食)하는데, 허세는 잔뜩 부리면서 거저먹으려는 태도 때문에 그는 류순정(柳順汀)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밉보이게 된다. 신진황(申晋璜)의 만류에도 류순정은 마침내 친구들과 모의하여 장수과의 과일을 도둑질해 그가 장가갈 밀천을 없애고, 미녀 최랑과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그가 알몸으로 옥에 갇히도록 만든다. 뒷부분의 서사가 결락되었으나 내용의 흐름상 그가 더욱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흥미로운 플롯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장수과에 대한 류순정의 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류순정은 작품 곳곳에서 “장가 늬에게 앞으로 무한한 고통을 안겨줄 테다(俺當使張厮備嘗無限苦海)” 라든가, “저자가 늬어 죽을 때까지 비탄에 잠겨 죽어가고 슬픔에 병이 드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인가?(這厮雖終年閱歲, 悲死愁病, 於俺何傷)”라고 하는 등 장수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여과 없이 노출하면서 그를 과산하는 지경으로 몰아간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류순정의 태도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 또한 작중 인물 신진황도 말하듯이, 장수과의 인간적 곁함에 비해 그에게 가해지는 징벌은 너무 극단적이다.¹³⁾ 장수과의 결점은 남에게 기식(寄食)한

다는 것과 실제 자신이 지닌 능력이나 미덕을 부풀리고 꾸민다는 것뿐인데, 류순정은 그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모두 망가뜨리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류순정이 장수과를 이토록 미워하는 데는 혹 다른 이유가 개입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류순정의 ‘도를 넘어선 장난’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찾을 수 있다. 류순정은 첫 만남의 ‘말 겨루기’에서 장수과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장수과를 미워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말 겨루기’는, 추후 전개되는 서사와 따로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대목은 작품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반부 서사를 주도한다는 점에서¹⁴⁾ 『장수과전』을 이루는 서사 구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의 ‘말로 겨루기’는 장수과와 류순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는 동시에, 서사 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장수과·류순정 두 사람의 말 겨루기를 순차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장생은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이 산은 내 집 바로 뒤편이니 내 응당 거정주인(居停主人)이라. 원컨대 말석이라도 끼어주시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라고 하였다. 장생은 크게 기뻐 그들이 앉은 자리로 나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13) 신진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게 되면 장생은 너 한 사람으로 인해 된서리를 만난 셈이 아니냐. 네가 그와 무슨 조상 대대로 원수를 진 사이도 아닌데 어찌자고 그렇게 모질게 군단 말인가. 하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然則張生由你一人荏逢霜雪, 你非其世讐, 胡至此極. 天不祚你. 天不祚你.)” 번역문과 원문 모두 임형택 편, 『한문서사의 영토』 하(태학사, 2012)에 의거하되 필요한 경우 번역문에 사소한 수정을 가하였다. 원문 교감은 임형택선생 소장본 『기리총화』에 의거하였다. 이하 동일. 자료를 열람하게 해 주신 임형택 선생의 후의에 감사드린다.

14) 두 사람의 말 겨루기는 현전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총 서사의 15%에 해당한다. 이는 언뜻 적은 비중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 작품이 대단히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서사가 ‘속이기’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대목은 이처럼 길게 제시됨으로써 전체 서사의 유희성을 떨어뜨리고 속도감을 지연시킨다. 이는 작가가 제답이나 말 겨루기에 흥미를 느껴 다소 과도하게 이를 작품에 활용한 결과가 생각된다.

“좌중의 귀한 분들과 통성명이나 하면 영광이겠습니다.”

상좌에 앉은 사람이 말했다.

“나는 성이 이(李)요, 이름은 정(貞)이며, 가친은 현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겸 판병조사(判兵曹事)시라요.” [국초에 과연 이런 벼슬이름이 있었다. (대괄호 안은 원주, 이하 동일)]

(중략)

네 번째 앉은 사람이 말했다.

“저는 성이 류(柳)요, 이름은 순정(順汀)인데, 부친은 이조전서(吏曹典書)를 역임하시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며, 가산을 탕진한지라, 붓을 버리고 무술을 공부하여 요로를 차지할까 바라고 있도요.”

다섯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야흐로 입을 벌려 말을 시작하려는데, 성희안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수백 명이 모두 다 제 성명을 늘어놓고 앉았다가는 낮에서 밤까지 이어지고 내일이 가고 모레가 되어도 끝나지 못할 텐데, 언제 활 한바탕이나 쏘아 보겠소?”

장생은 웃으며 말했다.

“만인을 대적할 방도를 배우려는 자는 모름지기 글은 자기 성명이나 적을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를 소개하는데 들어보니 모두 한 구비로만 나가고 있는데 하필 천양(穿楊)의 말기(末技)만 붙들고 있으리까?” [극히 해학적이고도 말솜씨가 있다.]¹⁵⁾

위의 인용문은 장수과가 자기의 집 근방에 있는 활터에 도착하여 그곳에 모인 무학(武學)의 수재들과 첫인사를 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우선 작가가 평어를 통해 장수과를 ‘해학적이고 말솜씨 있는[談而辯]’ 일종의 재담꾼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중에서 현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겸 판병조사(判兵曹事)의 아들 이정(李貞), 의흥위(義興衛)에 재직 중인 성희안(成希顔), 선전관(宣傳官) 신진황(申晉璜), 본디 혁

15) “生乃長揖道：‘此山在弊廬屋上，俺當爲居停主人，願忝末座。’ 諸人許之。生大喜，就席跪道：‘諸位公子，幸通貴姓尊名。’ 上座道：‘俺姓李，名貞，父親現任知中樞院事兼判兵曹事。’ [果然國初職名。] (…) 第四座道：‘俺姓柳，名順汀，父親歷職吏曹典書，不幸早沒，因家貧盡蕩，投筆學武，冀占要路。’ 第五座，方欲開口敘話，成希顔厲聲道：‘俺們數百人，若人人各陳姓名，則便是以晝繼夜，明日再明日，猶不能究竟，如何射了一鵠？’ 張生笑道：‘學萬人敵者，必須書足以記姓名。今公子們各道姓名，亦爲一課程，如何獨務穿楊之末技麼？’ [極談而辯。]”

혁한 집안의 자제이나 집안이 기울어 무반으로서 살 길을 도모하는 류순정(柳順汀) 등¹⁶⁾이 차례로 자기를 소개하자, 장수과는 이들이 모두 ‘무(武)와 관련 있음을 들어 ‘여러 사람들의 자기소개가 모두 한 구비로만 나가고 있다(今公子們各道姓名, 亦爲一課程)’고 지적하면서, 활쏘기를 하자는 성희안의 제안에 ‘만인을 대적할 방도를 배웠던 자’ 즉 항우(項羽)의 고사를 전용(轉用)하고¹⁷⁾ 또 양유기(養由基) 고사를 언급한다.¹⁸⁾

그런데 이와 같이 고사를 활용하며 숨은 의도를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은, 일견 우회적이고 재미난 어법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기저에는 무반들을 통틀어 알잡아보는 장수과의 태도가 깔려 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말석”에라도 앉기를 희망하면서도, 실상 가장 상석에 앉은 네 사람을 알잡아보는 발언을 하여 은근슬쩍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장수과는 무반들을 깔보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먼저 시비를 건 셈이다.

때문에 장수과가 말을 재미나게 구사할수록 류순정은 심기가 불편해진다. 그가 장수과에게 ‘당신이야말로 성명자나 기록할 수 있냐’고 응수하며 언짢은 심기를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말 겨루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장수과는 ‘규서(奎瑞)’라는 아명을 시작으로 31개나 되는 자신의 별칭을 줄줄이 늘어놓는다.¹⁹⁾ 그리고 그가 청산유수로 열거하는 31개의 각종 명칭들은 사실 별 뜻 없는 것들이다. 이처럼 유사한 사례를 풍부하게 나열하면서 언어사용의 재미를 주는 말하기 방식은 본디 재담의 한 기법으로²⁰⁾

16) 이 중 성희안(1461~1513)과 류순정(1459~1512)은 중종반정의 공신들이다. 굳이 이들을 부정적인 인물로 내세운 것은 후대의 평가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극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9권에 의하면 성희안과 류순정은 임금의 신임을 얻었으면서도 세상에 남을 만한 공적은 하나도 세우지 못한 채 자만심에 짙 차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의 정육만 채우다 생을 마쳤다고 한다.

17)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서 나오는 말이다. 본디 항우는 글공부를 오래 하지 못했다. 그의 숙부 항량이 이를 근심하자, “글은 성명이나 쓰면 족할 따름입니다. 검은 한 사람을 대적하여 배우기 부족하니, 만인을 대적하는 방도를 배우고자 합니다(書足以記名姓而已. 劍一人敵, 不足學, 學萬人敵)”라고 하였다.

18) “버들잎을 뚫는[穿楊] 말기”는 활쏘기를 일컫는 말로서 『史記』 『周紀』를 출전으로 삼는다. 양유기(養由基)라는 사람이 백보 밖에서 활로 버들잎을 쏘아 적중시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19) 장수과가 31개의 명칭을 나열하는 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伊來赴舉則稱秀才, 遠行則稱遊人, 在家則稱主翁, 羈旅則稱客子, 妙年則稱碩士, 晚景則稱生員, 登高則稱山客, 菴深則稱溪賓, 居廬則稱哀孤, 空房則稱鰥夫, 向君則稱臣, 向父則稱子…”

20)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16면.

『두껍전』이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민옹전(閔翁傳)』 등 몇몇 소설에도 인입(引入)되어 있으나, 장수과의 열거법은 흥미를 배가시키면서도 특히 그의 현학적이고 과시적인 성격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여타 작품들과 변별된다.²¹⁾

즉 무의미한 단어의 공허한 나열이라는 수사법은, 장수과의 재담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정작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들을 깎아 내리려고 잔뜩 허세를 부리는 장수과의 태도와 표리를 이루는 것이다. 장수과는 이와 같은 말하기 방식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자.

류순정은 곁곁 웃으며 말했다.

“선생은 스스로 자신을 성인에 견주고 있지만, 내가 보건대 변변찮은 인물에 불과한데요.”

장수는 섬뚱 놀라는 척 하다가 웃으면서 대답하길

“제 눈엔 여러분들이 모두 성인으로 보입니다.”

류순정은 깜짝 놀라 물었다.

“내가 선생을 변변찮은 인물이라 했는데, 선생은 나를 성인이라고 하다니 왜 그러니까?”

“변변찮은 인물의 미친 눈에는 변변찮은 인물만 보이고, 성인의 지혜로운 눈엔 성인만 보인답니다.” [오늘날까지도 광대들이 이런 말투를 곧잘 쓴다.]²²⁾

류순정은 이제 장수과를 비웃고 있다. 장수과의 지나친 과시적 태도가 제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일 터이다. 그리고 류순정은 여태껏 예의를 지켰던 것과는 달리 그의 하찮은 재주를 비웃으며 모욕을 준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장수과도 만만치 않다. 그는 짐짓 놀라는 체 하

21) 두꺼비는 여우와 겨루면서 음양오행과 천문지리의 이치, 의학에 대한 지식 등을 장황하게 열거하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그 내용은 실상 단순한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며, 이와 같은 대목은 알찬 정보의 제공보다는 입심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것이다(김엽선, 『조선 후기 우화소설 『두껍전』의 구비문학적 특성』, 『고전과 해석』4,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회, 2008, 87~88면).

22) “柳順汀大笑道：‘先生自比聖人，俺所仰期於先生，不過一狗才。’張生啞然一笑道：‘以余觀於諸公子，都是聖人。’順汀驚道：‘俺以先生爲狗才，先生以俺爲聖人，何謂也？’生道：‘狗才狂眼，但見狗才，聖人慧眼，但見聖人。’[至今侏儒，慣用此言。]”

더니 이내 상대방을 추어 세우고는, 돌연 ‘변변찮은 인물의 미친 눈에는 변변찮은 인물만 보이고, 성인의 지혜로운 눈엔 성인만 보인다’는 논리로 류순정이 내뱉었던 욕을 그대로 되돌려준다. 이는 평어에서도 말한바 재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광대”들이나 쓸 수 있는 고도의 수법이자, 상대방을 알잡아보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에 류순정은 말 겨루기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어지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류순정이 화가 버럭 나서 말했다.

“선생의 여러 가지 칭호에 스스로 ‘강기(強記)’라고 일컬었거늘 아직 성은 말하지 않았지요. 선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한 판 졌습니다.”

“나같이 총명한 사람이 어찌 성을 잊었겠습니까? 나의 뿌리를 말하고 보면 여러분들은 감히 얼굴을 들고 말을 잊지 못하며, 머리를 숙이고 땅 바닥을 기게 될 거요.”

“우리들은 모두 교목(喬木)과 같은 명문 출신이라면, 선생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넝쿨에 지나지 못하거늘 어떻게 문벌로 우리를 압도한단 말ियो?”

이에 장생이 대답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실개천이나 땅바닥에 고인 물 정도라. 근원을 따져 보았자 3, 4리에 불과한데 나로 말하면 실로 장강이나 큰 바다 같아서 멀리 은하수에서 나와 근원을 찾으면 끝이 없으니, 어떻게 더불어 논할 수 있으리오?”

류순정이 말했다.

“당신이 먼저 계보를 말하시오. 누가 낫고 누가 못한지 따져보기로 합시다.”

“나는 성이 장(張)이니, 비조(鼻祖)로 말하면 유후(留侯) 장량(張良)이라. 벽강(辟疆)을 낳았고, 벽강이 나가서 제왕(齊王)이 되었지요. 벽강의 양자가 고조의 딸 위국공주와 결혼하여 승상 장창(張蒼)을 낳았습니다. (중략) 이렇듯 대대로 청직 현직을 누려 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답니다. 우리 국조에 이르러서는 부귀영화가 일문에 가득 찼으니 지금 이조판서 장모씨는 나의 4촌 아저씨요, 집현전 제학 장모씨는 나의 5촌 형제랍니다.”²³⁾

23) “順汀怒道：‘先生多般名稱，自謂強記而不會說出姓氏，恰好揜俺一着’。生道：‘以俺聰明，怎能忘了姓氏？特以若說出派源，則諸公子不能仰面打話，固當俛首膝行’。順汀道：‘俺都是喬木餘蔭，先生只是葛蘿附樹，怎能壓倒俺們？’。生道：‘諸公子都是細泉行潦，源委不過三四里，俺正若河海濟洛，溯出銀漢，攬之無窮，怎能同日語也。’。順汀道：‘第言系譜，相定甲乙。’。生道：‘俺姓張，鼻祖留侯良，生辟疆，辟疆出爲齊王耳。’。(...) 世世清顯，指不勝屈。至于我朝，尤爲盈滿，見今吏曹判書張某，爲俺四寸叔，集賢殿提學張某，爲俺五寸兄弟。衆人大笑道：‘古今以張爲姓者，都做一家’。

못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고급에 장가 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다 일가로 삼고 있다니,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옛날 현인들까지 욕을 보이는군. 성인이 진정 이런단 말이오?”

류순정은 분노하며[怒] 장수과에게 패배를 인정하기를 종용한다. 장수과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내세우면서 또다시 이들에게 모욕감을 준다. 이에 류순정이 다시 교목(喬木)과 녁쿨(蔦蘿)에 비유하여 두 사람의 출신 차이를 극화시키자, 장수과는 한술 더 떠 자기의 ‘근원’을 넓은 바다로, 류순정 일당의 ‘근원’을 실개천에 비유하며 욕보인다.

이에 류순정은 그의 계보를 말하라고 재촉하는데, 이어지는 장수과의 답은 웃음을 자아낸다. 그는 자신의 근원을 저 멀리 한(漢)나라의 책략가 장량(張良)으로 소급한 것이다.²⁴⁾ 이어서 그는 장창(張蒼)·장안세(張安世)·장감(張堪)·장비(張飛) 등 역사서에나 등장하는 저명한 인물들은 물론 현직 이조판서까지 언급하는데, 이는 진한 재미를 위해 허풍과 과장을 활용하는 재담가의 말하기 방식이다.²⁵⁾

그렇지만 여기서 청중들의 ‘큰 웃음[大笑]’은, 장수과의 말솜씨에 재미를 느껴 터진 것만은 아닌 듯하다. 그들은 크게 웃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욕되게[自辱其身]” 할 뿐 아니라 옛 성인들마저 욕보인다고 장수과를 질책한다. 이는 장수과의 말하기 방식이 그 허장성세하는 성격과 긴밀히 조응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장수과전』 서사의 앞쪽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공수(攻守)에는 재미난 재담의 기법이 구사되어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수과의 말하기 방식은 그 근거에 무반들을 알잡아보는 태도를 깔고 있는바 이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허위를 부리는 그

派流，非徒自辱其身，乃反污讖前賢，聖人固如是麼?”

24) 이 부분 또한 『두껍전』과 닮아 있다. 『두껍전』에서 두꺼비는 『사기』를 인용하며 자기가 고종으로부터 내려오는 양반임을 밝히며 가문의식에 집착한다(이강욱, 『<두껍전>의 말하기 전략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136면).

25) 과장법은 열거법과 마찬가지로 재담이 이루어지는 한 방식이다. 과장담은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과장을 많이 하는 여부에 흥미의 초점이 놓인다(서대석, 앞의 책, 30면).

의 성격과 긴밀히 조응된다. 그러면서 과장과 열거로 점철된 그의 말하기 방식은 초라한 실체와는 대조되어, ‘아이러니’²⁶⁾를 빚어내면서 그를 희화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2.2. 속이기

『장수과전』은 각종 속임수로 점철되어 있는 기만담이다. 류순정은 반드시 장수과에게 한 번 대접을 받았다는 일념으로, 일련의 기발한 속임수를 구상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류순정의 속임수에는 주 매과, 최랑, 이정, 수백의 한량 무리 등 무수한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주된 서사 구조는 ‘속이기’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여기서는 류순정의 속임수를 위주로 일련의 사건을 검토하도록 한다.

㉠ 과일 털어먹기

류순정이 장수과를 속이는 것은 귀신으로 ‘위장’하여 그의 과일을 모두 털어 먹는 계획을 실행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저 장가놈이 만약 과일을 독식하여 이익을 저 혼자 챙긴다면 나는 종신토록 한이 될 것이다(這張廝若都熟園果, 全獲其利, 俺當終身茹恨)”라며 어느 달 밝은 밤 여러 한량들과 공모하여 장수과가 지키는 과일을 훔쳐 먹으러 간다.

류순정 일당은 숨어 있다가 과일을 지키고 있는 장수과에게 돌을 던진다. 장수과가 귀신의 장난이라 생각하여 겁을 먹자, 류순정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한다.

류순정은 장생이 겁을 집어먹고 움츠러든 줄 짐작하여, 이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흔들리고 벌거숭이가 되어 울타리로 올라가서 나무에 걸터앉았다. 장생은 흘깃 보고서 크게 놀라 뭐라고 급히 외우는데,

“각항저방심미기, 두우려허위실벽, 정귀류성장익진, 진익장성류귀정, 벽실위

26) 아이러니는 ‘모순된 상황’이나 ‘어법’을 골자로 하여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문학 용어이나, 흔히 ‘외양과 실체의 대조를 통해 모순을 폭로하는 문학적 기법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같은 아이러니는, 자신이나 외부 현실에 무지(無知)한 인물의 모순을 객관적인 외부현실과의 관계에 의해 폭로함으로써 허위에 찬 인물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상 아이러니와 풍자에 대한 개념은 D.C. Muecke, 『아이러니』(문상득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24~26면) 참조.

허녀우두, 기미심방저항까”

이라고 하는 등 모두 잡귀를 쫓는 주문 같은 것을 계속 주워섬기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문을 열고 내다보며 지키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류순정이 돌맹이를 들어 마음먹고 던지니 장생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선혈이 쏟아졌다. 장생은 비명을 지르고 문을 딱 걸어 잠갔다. 그리고 옷소매를 찢어 머리통을 싸매고서 『옥추경(玉樞經)』을 계속 외워대는 것이었다. 류순정(柳順丁)이 여러 사람들을 손짓해 불러서 모두 과일나무에 올라가 한편으로 돌맹이를 창문에 던지며 한편으로 과일을 마구 따다. 삼시간에 과일을 다 따고 나무에서 뛰어내렸다.²⁷⁾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장수과는 귀신이 해코지하는 줄만 알고 28수(宿)의 이름을 나열하며 중얼대고, 돌맹이를 맞으면서도 귀신을 물리친다는 도교의 책 『옥추경』을 계속 읽는다. 장수과의 이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다 시금 독자의 실소를 자아낸다. 선행연구에서 “독자는 류순정이 벌이는 주인공 망치기 계획의 동조자가 되며 그와 함께 장생이 망가지는 과정을 즐긴다”²⁸⁾고 한 것은, 아마도 속아 넘어가는 장생의 우스꽝스러운 순간을 이처럼 절묘하게 포착한 작가의 솜씨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일 터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어떤 이는 ‘장생이 망가지는 과정을 즐기지’ 않음 것이라 생각된다. 그가 받는 고통이 다소 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생은 이마에 돌을 맞고 선혈을 쏟으며, 장가갈 유일한 밀천이 되어줄 과실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도둑맞는데, 이와 같은 장면은 장수과에게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준다.²⁹⁾ 따라서 류순정의 속임수는 유쾌한 웃음만을 유발하지는 않게 된다.

27) “順汀知生物縮，乃與數人，披髮裸體，攀緣籬樊，踞坐樹頭。生睇視大驚，亟呼：‘角亢氏房心尾箕，斗牛女虛危室壁，井鬼柳星張翼軫，軫翼張星柳鬼井，壁室危虛女牛斗，箕尾心房氏亢角。’一應逐鬼之辭，無不通遍，而猶不廢開戶看守。順汀以石子用心直擊，正中生頭額，鮮血淋漓。生大叫一聲，緊閉門了，扯去衣袖，裹了頭顱，大讀『玉樞經』。順汀揮手招衆人，都上果樹，一面以亂石打籬柵，一面亟摘果品，卽刻便盡，乃跳下樹來。聯登山脊，猶遠投瓦石，以防追趕。因啣枚疾走，齊到靜僻處，各分歸家。”

28) 이승현, 앞의 논문, 76~77면.

29) 베르그송에 의하면, 희극은 “순수 지성”에 호소하고 있으며, “공감이나 공포 또는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나는 그것에 관해 웃을 수가 없다. (...) 악덕이 나의 감정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희극의 틀림없는 충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필수적인 유일한 조건이다(Henri Bergson, 『웃음-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김진성 역, 1983, 87면).”

더구나 장수과가 다음날 나타나지 않자 류순정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하며, 특히 신진황은 류순정을 몹시 나무란다. 여기에 더해 저녁 느지막이 나타난 장수과는 목이 맨 소리로 “이제는 계획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고 먹고 살 거리도 없어졌으니, 한번 죽는 도리밖에 없게 되었습니다(從此營辦已虛, 契活又空, 不若一死爲便).”라며 눈물을 떨구기까지 한다. 이처럼 류순정의 속이기는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임수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즐거움’과 ‘연민’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자아낸다.

② 미인계로 유혹하여 하옥시키기

류순정은 장수과의 1년치 소득을 터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의 전 재산을 탕진시킬 계략을 세운다. 그는 장수과가 제위전(祭位田)이며 소나무 등을 통해 얼마간의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미인계를 써서 저놈의 재물을 몽땅 우리 수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사장에서 한번 배불리 먹는 재료로 삼고자 한다(俺設一美人計, 使這廝家財一一入吾手裡, 以得帳場一飽)”며 장수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기를 도모한다.

그는 중매쟁이 주(朱) 노파와 최랑과 공모하여³⁰⁾ 장수과에게 덫을 놓는다. 먼저 주 매파는, 장수과의 현실적 여건이 썩 좋지 않음을 상기시키며 그의 조바심을 자극하고, 얼마 후 혼처를 ‘어렵사리 구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장수과가 류순정의 의관을 빌려 입도록 유도한다. 장수과는 류순정에게 번듯한 의관을 빌려 입다가 영겁결에 ‘사흘에 한 번 작은 잔치, 닷새에 한 번 큰 잔치’를 배푼다는 증빙 문서에 서명까지 하게 된다.

장수과는 아름다운 최랑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두 사람의 결연은 녹록치 않다. 최랑이 그를 거절할 것이다. 장수과는 더욱 조급해하고, 류순정과 매파는 장수과의 에티는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주 매파가 최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鵝眼]이 필요하다고 하자,

30) 작품에서 최랑이 류순정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류순정이 사전에 취처(娶妻)를 미끼로 장수과를 곤경에 빠뜨리겠다고 선언한 점, 그리고 그가 장수과에게 중매쟁이를 소개했다는 점, 결과적으로 최랑이 류순정의 일당 이정(李貞)과 연루되어 장수과를 곤란에 빠뜨린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최랑, 주씨 매파는 모두 류순정과 공모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최랑에게 마음을 빼앗긴 장수과는 선뜻 조상의 산소를 정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뒀던 재산을 내놓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장수과를 패섬하게 여기는 류순정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껏 ‘돈이 없다’고 해왔던 장수과의 말이 류순정을 통해 거짓임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술자는 류순정이 각종 속임수를 활용하여 장수과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전개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장수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독자는 장수과가 최랑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큰 잔치를 열어주겠다는 문서에 덜컥 서명을 하거나, 전 재산을 매파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이 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한편으론 그를 안쓰러운 시선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에 대한 류순정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결말에서 장수과가 용서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류순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수과를 관아의 옥에 갇히게 만든다. 고대하던 최랑과의 첫날밤에 류순정의 일당 중 하나인 이정(李貞)의 노복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여기서 장수과는 최랑이 이정의 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몸인 채로 궤짝에 숨는다. 그리고 궤짝채로 관아로 실려가 반으로 갈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공인들이 명한대로 톱질을 시작하는데 장생은 속에서 부르짖었다.

“사또님, 이 실날같은 목숨을 살려주소서.”

온 관부가 크게 놀라 즉시 궤짝을 부수고 장생을 잡아내 퐁퐁 묶었다. 장생은 벌거벗은 몸뚱이로 재판정에 엎드려 벌벌 떨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이씨의 노창두가 아뢰었다.

“이 놈이 원네 집 측실과 간통을 하여 시일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행으로 현장 포착을 하였사오니 사또께옵선 엄단해 주옵기를 앙청하옵니다.”

사또는 크게 노하여 당장 장생에게 칼을 썬우고 차꼬를 채워서 시가옥(市街獄)으로 송치하였다. 장생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지만 사또가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나 하였겠는가. 장생은 아무런 도리도 없어 관가의 노숙에게 허름한 옷가지를 빌려 입고 감옥으로 끌려간 것이다. 길가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옥에 갇혀서 장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걸려든 화망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슬피하며 마음을 건잡지 못하

었다.³¹⁾

장수과는 영문도 모른 채 관아에 끌려가 알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뿐 아니라 간통죄를 저지른 과렴치한으로 지목되어 칼을 차고 ‘시가옥(市街獄)’에 갇히게 된다. 시가옥은 종각의 서쪽 거리에 있었던 옥으로 추정되는데,³²⁾ 길가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양반 남성이 여성과 야합(野合)하다가 궤짝에 숨고, 알몸으로 나와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모티프 자체는 비슷한 시기에 향유된 판소리계 소설 『배비장전(裵裵將傳)』에서도 보인다. 그렇지만 장수과는 배비장보다도 더 가혹한 벌을 받는다. 배비장이 망신을 당하는 데 그치는 것에 비해 장수과는 실제로 하옥되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 “스스로 후회하고 슬퍼하는[自悔自悼]” 것이다.

지금까지 류순정이 치밀하게 속임수를 계획하여 장수과를 파멸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한편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도록 하기도 한다. 이는 작가가 장수과뿐 아니라 ‘류순정 일당’에게도 냉철한 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자 모두에게 공감의 여지를 열어놓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슷한 모티프를 채용한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장수과에 대한 류순정의 미움이 너무나 강하므로, 두 사람에게는 화해의 여지가 없고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 치달을 뿐이다. 때문에 이들의 속고 속이는 과정은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복합적인 상황을 창출한다. 이는 속이기가 서사에서 구현되는 일반적일 양상과는 변별된다.³³⁾

31) “公人依令制下，生大叫道：‘願明府救活縲命！’一府驚怪，破了橫子，拿生縛致。生赤身公庭，戰慄不定。李家蒼頭道：‘此賊，奸通小的家側室，不知幾歲月，今幸現捉，望明府嚴斷。’府君大怒，張生枷鎖鈕糸尼，送了市街獄。生只得叫冤，府君那裡肯聽。生四下無策，借了府僮一縷袍，就囚，行路指笑。生獄中尋思，禍網不輕，自悔自悼，不能定情。”

32) 조선시대에 서울의 ‘시가’는 종각의 서쪽 거리인 운종가(雲從街)를 지칭한다. 운종가에 어떤 옥이 있었는지는 미상이다. 임형택, 앞의 책, 341면.

33) 일반적으로 서사에 속이기가 나오면 독자는 ‘속이는 주체’에 동조하여, 속아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맛본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김열규의 논의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김열규에 의하면, 속이기 과정은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른바 “단초적 트릭”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의 “대응 트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단초적 트릭”을 사용하는 주체들은 대체로 탐욕스럽거나 교활한 권력자이며, “대응 트릭”을 사용하는 인물군은

3. 「장수과전」의 서사 특성

3.1. 열전의 패러디

앞서 살폈듯이 『장수과전』은 주인공을 망치는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이는 전(傳) 양식과는 상반되는데 본디 전은 ‘사실’을 바탕으로 입전인물의 인간적인 가치와 미덕을 예화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입전 인물을 ‘표창’한다.³⁴⁾

그런데 ‘소설적 허구’ 속에서 주인공의 우행(愚行)과 결함을 묘사하며 ‘조롱과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장수과전』에서 ‘전’을 자각적으로 변용한 부분이 있어 눈에 띈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평비(評批)를 사용하여 전 양식에 대한 작가의 자각적 의식을 드러낸다.³⁵⁾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밤, 우리 어머니께서 규성(奎星)을 꿈꾸셨고 태어난 다음에 보니 정신은 가을 물처럼 깨끗하고 용모는 옥과 같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아명을 ‘규서(奎瑞)’로 지어 주셨으며, 세 살이 되자 구류백가(九流百家)와 복서음양(卜筮陰陽)에 두루 통했고, 매일 능히 만 여 자를 외웠지요. 당 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천재라고 일컬었다오. [그렇다면 장생은 하늘이 낸 성인이 아닌가] 관례(冠禮)를 함에 미쳐서, [40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사람인데 관을 쓰고 빈(賓)을 모셨다는 것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름은 ‘기공(奇功)’이라 짓고, 자를 ‘탁렬(卓烈)’이라고 붙였답니다. [장생의 이름과 자(字)가 여기서 비로소 나왔으니 참으로 훌륭한 사관의 빛이라 하겠다.]³⁶⁾

가난하고 선한 약자에 해당한다. 독자들은 왜소하고 유약한 인물에 자신을 투영하여 강한 인물을 속이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김영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 34) 박희병, 『조선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37~39면.
 35) 『장수과전』은 열전의 교양을 전제로 삼으면서 전 장르와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작품에 인입된 고사는 주로 『사기』를 위시한 역사서의 열전을 출전으로 하며, 평어에서도 주로 각종 사서(史書)를 인용한다. 이는 대표적인 비평가 김성탄이 평어에서 역사서 뿐 아니라 『논어』, 『맹자』, 『전국책』 등 보다 방대한 규모에서 전고를 차용한 것(정선희, 『조선 후기 소설비평론과 문예미학의 발전: 김성탄의 소설평비본 독서와 관련하여』, 『어문연구』35, 한국어문어교육연구회, 2007, 220~222면)과는 변별된다.
 36) ……으로 처리된 부분은 원문에서 다섯 글자가 빠진 부분이다. “生道: 俺生之夜, 慈母夢奎宿, 既分婉而神擬秋水, 貌如寒玉, 父母命小字奎瑞, 及夫三歲, 遍誦九流百家卜筮陰陽, 日記萬餘言, 時人都叫做天童。[然則張生其天知之聖歟!] 及冠賓, [四句未娶的, 加冠, 難保有賓贊。] 卜

인용문은 앞에서도 살폈듯이 장생이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전에서는 작가가 초반부에 인물의 성명·가계·직책 등의 정보 및 자질이나 성품 등을 기술한다. “사관의 붓”이 소개해야 할 내용 즉 비범한 출생과 재주, 이로 인해 파생된 갖가지 별칭들이 여기서는 장생 스스로의 입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 작가는 평비를 통해 이 같은 서술방식이야말로 ‘홀륭한 사관의 필치’라고 강조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비슷한 서술 방식이 보인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 배불리 먹으며 술을 실컷 마셨다. 장생은 술이 잔뜩 취한 기분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희희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까 나의 허다한 호칭을 들었는데, 정작 좋은 별명은 있고 말하지 않았구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또 무슨 자랑거리가 있단 말ियो?” “내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과일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 가는데 매양 봄부터 여름사이에 과일이 익어가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망을 서서 동네 아이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지키지요. 그래서 모두들 나를 ‘장수과(張守果)’라고 부르다오.” **[그의 생업이나 호칭을 전의 첫머리에 쓰지 않고, 문득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오게 했으니, 서사의 묘품이라 하겠다.]**

이날은 저녁이 되어서 파했다. 그 이후로 장생은 날마다 사장으로 올라가서 음식상의 찌꺼기를 훑으니 사람들이 아주 귀찮게 여겨서 말투와 얼굴에 나타났다. 그래도 장생은 염치를 무릅쓰고 하루도 빠지 않고 기웃거렸다. 사람들은 이 에 또 그를 ‘장비위’라고 새 별명을 지어 불렀다.

허풍을 늘어놓던 장수과는 그만 술에 취해 자신의 본질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다. 그는 실상 고귀한 가문의 후손도 아니며, 문필에 능한 ‘규서(奎瑞)’도 아니고, 천재나 성인은 더더구나 아닌, 동네 아이들로부터 과실을 사수하는 ‘과수(果樹) 지킴이’일 뿐이다. 서술자는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전과는 달리 인물의 실체가 문득 그 자신으로 인해 폭로되는 것이 서사의 묘품이라고 평한다. 그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장면에서 다시금 이 작품이 ‘전’인 동시에 전의 전통에서 이탈했음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왜 작가는 여기서 굳이 전을 언급하며, 이런 대목을 ‘서사의 묘품’이니

‘훌륭한 사관의 필치’니 하며 강조하는 것일까?

『장수과전』에 전적 요소가 나타나는 방식을 고찰해보건대, 작가는 본디 ‘진지한’ 내용을 다루는 전 양식을 장수과라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을 기록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는 패러디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작가는, 평어를 통해 전의 장르의식을 상기시키면서 독자에게 장수과를 입전 인물로 대할 것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표창의 대상인 입전 인물에 비해 그를 한없이 격하시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비루한 인물로 제시되며, 그럼에도 그는 마치 입전 인물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들과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장수과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습거니와, 그는 평어를 통해 ‘입전 인물’로 인식됨으로써 한층 더 희화화된다.

요컨대 전의 자각적 변용을 통해, 고상한 양식[전]과 범속한 제재[인물]의 괴리에 의해 장수과는 보다 강도 높게 풍자된다. ‘말로 겨루기’에서 보이는 장수과의 우스꽝스러운 면모가 전 양식의 패러디를 통해 심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서두에 이와 같은 기법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작품의 경쾌한 필치와 풍자적 어조를 미리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2. 애정전기소설의 패러디

애정전기소설의 서사문법은 19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여러 소설에 활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은 대체로 통속성을 강화하는 데 비해 사실성이나 진정성을 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³⁷⁾ 그런데 『장수과전』은 흥미 추구는 물론이거니와, 애정전기소설을 ‘패러디’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성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장수과전』에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 및 그 만남과 헤어짐의 미감이 패러디되는 주요 국면을 살펴도록 한다.³⁸⁾

37) 정길수, 『『절화기담』 연구: 19세기 애정전기 전통의 계승과 변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86면. 다만 이 논문에 의하면 『절화기담』과 같은 경우 리얼리즘의 진전과 관련을 맺는 ‘긍정적인’ 통속성과 흥미를 위주로 하는 ‘부정적인’ 통속성이 혼재되어 있다.

38) 『장수과전』이 애정전기소설의 전도된 형태라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임형택, 앞의 논문, 22면).

애정전기소설적 면모는 작품의 중반부 즉 장수과와 최랑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대목에서 보인다. 이 대목은 두 남녀의 만남과 이별을 다양하게 축조해 보인다는 점에서 애정전기소설의 ‘서사문법적 특징’을 따르고 있다.³⁹⁾ 그러면서도 작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애정전기소설을 패러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먼저, 인물들이 ‘재자가인’임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부터가 애정전기소설의 패러디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애정전기의 주인공은 빼어난 재주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재자가인이다. 또한 이들은 감상적이고 유약하며, 사랑에 맹목적으로 투신하는 경향을 보인다.⁴⁰⁾ 장수과와 최랑은 이와 같은 애정전기의 주인공인양 행세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최랑은 장수과를 속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기소설의 여주인공을 가장(假裝)하고 나타난다. 다음은 최랑의 대사 중 일부이다.

㉠ “저는 절의를 귀히 여기고 음행을 천하게 생각하지만, 서울의 경박자(輕薄子)들이 밤낮으로 넘보고 덤벼들어 괴롭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헤아려보건대 제 신세가 끝내 힘센 자에게 능욕당하는 일을 면치 못할까 싶어 항시 몸에 가시가 찢리는 듯했지요. 백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번듯한 남자를 잘 택해서 성체를 굳건히 하고 저들 무리로 하여금 넘겨보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마나님은 저를 위하여 천하의 의기 있는 남자를 하나 구해주어 일생토록 잘 지내게 되었으면 합니다.”⁴¹⁾

㉡ “제 어찌 감히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겨 귀신의 벌을 자초하겠습니까? 이가(李家) 돈견(豚犬)이 귀문에서 태어나 버르장머리가 없어 온갖 험박을 가합니다. 저는 오직 ‘수의(守義)’ 두 글자로 저자를 거부했지요. 저자 또한 악독을 달리 부릴 길이 없어 하는 판인데, 지금 만약 장 수재와 혼인을 하고 보면 저자는 필시 화가 잔뜩 올라서 관에 무고할 것입니다. 제 몸은 아무래도 관비로 박힐 터요, 장 수재 또한 뜻밖의 횡액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인연이 이미 떠나

39)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53면.

40) 박희병, 위의 책, 45~48면.

41) “小侄非不貴義賤淫，而但長女輕薄兒日夜穿窬，困惱萬端。自料身世終不免健兒強污，恒若芒刺及身，百爾細思，不得不另卜善男，堅壘立幟，使彼輩不得正視。望姐姐爲俺求天下有心人，以期百年無憾。”

간 구름이요, 흘러간 물이 되리라. 저 한 몸 머리를 깎고 불문에 귀의하여 내세의 복전(福田)이나 빌어야겠지요. 바라옵건대 저를 위해서 장 수재에게 말을 전하여 저같이 박명한 일개 여자를 잊지 못해 하지 말고, 부디 귀중한 몸 잘 지키도록 하옵소서. 행여나 유마거사(維摩居士)가 얹어 있어 내세에 짝이 되어 전생의 부채를 갚게 되었으면 하옵니다.”⁴²⁾

㉠은 중매쟁이 주 노파가 장수과에게 최랑의 사연을 전달하는 장면이다. 인용문에 의하면, 최랑은 본디 절의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현재 수절하지 못하는 “가시에 찔리는 듯한(芒刺及身)” 상황에 처해 있다. “신세모순(身世矛盾)”의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그는 애정전기 인물의 면모를 보이며, 직접 절절한 자기고백적인 발화를 한다는 점에서도 일견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을 계승하는 듯 보인다.⁴³⁾

㉡은 최랑이 매과를 통해 결연을 약조한 장수과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이다. 최랑은, 부유한 이생(李生)에게 협박을 받고 있어 장수과와 혼인할 수 없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수의(守義)’만이 자신의 궁극의 가치이므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절에 귀의하고자 한다. 절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결연 장애에 위축된 나머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역시 전기적 인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⁴⁴⁾

그러나 사실 최랑은 매과와 류순정, 이정과 작당하여 장수과를 속이는 인물로, 장수과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전기적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최랑을 통해 애정전기의 도덕적인 여주인공이 사기꾼으로 패러디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 주인공의 설정뿐 아니라, 『장수과전』은 애정전기소설의 문체를 활용함으로써 낭만적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다가 급격히 반전을 주는 방식을

42) “小侄怎敢背義忘約，以速鬼廬。而李家豚犬，生貴肆氣，強逼殊甚。小侄只以平生守義二字拒他，他亦無路逞毒，今若與張秀才相配，他必盛怒誣官，將小侄投入官婢。張秀才又將罹了奇禍，現在緣業已屬流雲逝水，竄欲祝髮空門，以希來生福田。幸爲小侄傳道張秀才，勿以俺一介薄命兒女掛心，善自保惜。倘維摩有知，庶得世世爲配，以了前債。”

43) 전기소설에 보이는 여성 화자의 자기고백은 삼입시 이상으로 절절한 정감을 자아낸다. 이 상 전기소설의 전통에 대해서는 정길수의 앞의 논문 참조.

44) 전기적 인간에 대해서는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36~40면) 참조.

통해 애정전기 장르를 패러디하기도 한다.

장생은 말끝마다 “예 예”하고 응낙한 다음, 몸을 숨기고 창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삼경에 이르러 과연 두 시녀가 촛불을 들고 길을 밝히며 들어오는 데, 그윽한 향기가 코에 스며 들어왔다. 한 여인이 별 같은 눈동자에 달 같은 자태로, 옅은 화장에 새하얀 옷을 입고 사뿐 사뿐히 다가오는 것이었다.⁴⁵⁾

인용문은 장생이 주 노파의 중매를 통해 처음으로 최랑을 보고 그에게 첫눈에 반하는 대목이다. 남성 화자의 눈에 비친 아리따운 여성의 용모를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애정전기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서사의 진행에 따라 이 작품은 애정전기 본연의 미감과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장생은 바라보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히히”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 낭자는 섬뜩하여 우뚝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중에 장생의 두 눈과 마주치고 말았다.⁴⁶⁾

위의 인용문은 앞서 인용한 대목에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바로 앞에서 애정전기의 문체를 답습하여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다가, 남자 주인공이 돌연 한없이 비루한 본색을 내보임으로써 작품은 해학적인 어조로 전환한다. 아름다운 여성을 본 장수과가 본색을 드러내며 “히히” 하고 웃는 형편없는 실례를 범하고 만 것이다.

이어서 결연의 장애와 이에 따른 장수과의 시련이 전개되는데, 이 부분 또한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전형적인 애정전기에서 남녀는 저항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지게 되며, 사랑이 깊어질수록 장애 요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련을 겪게 된다. 애정전기 속 애정의 순도와 밀도는 시련의 심각성과 관련되는 것이다.⁴⁷⁾

45) “生滿口應諾，潛身窺隙。至三鼓下，果然二青衣執燭前導，薰香襲人。有一姬，星眸月態，淡粧綺服，萬轉到來。”

46) “生見了不勝其喜，失口出笑，嚇嚇不已。那娘子瞿然停立，四下環視，正撞着生兩眼。”

그런데 『장수과전』에서 결연의 장애는 미인을 보고 “히히” 웃는 결례를 범한 장수와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결합 때문에 생겨나며, 이 결연의 장애로 인한 시련의 양상도 심각하다기보다는 픽 해학적으로 그려진다.

주 할멈은 대문 밖으로 나가는 최 낭자를 붙들고 애써 달렸으나 노여운 마음을 끝내 풀지 못했다. 혼자 방으로 돌아와서 장생의 두 뺨을 때리며 소리를 쳤다.

“내가 한편으로는 류 공자의 부탁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너의 불우한 신세가 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 거의 성사가 된 일인데, 네가 잠깐사이에 웃음을 참지 못해 이 늙은 몸이 어린 여자에게 수모를 당하도록 한단 말이나. 너는 지금 당장 나가라.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밟을 생각도 말아라.”

그리고는 여종들을 불러 장생의 가슴을 떠밀어 문밖으로 쫓아내고 나서 열쇠로 대문을 단단히 잠가버렸다. 장생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밖에 없었다. 중도에 순라꾼에게 붙잡혀서 꼬꽁 묶여 끌려가 곤장을 얻어맞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회한의 감정을 이길 수 없었다.⁴⁸⁾

인용문은 결연의 장애로 인해 장수과가 겪게 되는 시련의 과정이다. 장수과는 중매쟁이 노파에게 뺨을 맞고 귀갓길에는 곤장을 맞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비극성보다는 실소를 자아낸다. 즉, 『장수과전』 속에서 남녀 결연의 장애와 시련은 비극이 아닌 희극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장수과전』은 애정전기를 변용함으로써 ‘비극성’보다는 ‘희극성’을 자아낸다. 또한 애초부터 ‘전기적인 인간’이 아닌 장수과와, ‘전기적 인물의 패러디’인 최량의 만남을 그림으로써 전기적 사랑을 속화(俗化)시키고 타락한 인물의 초상을 그려내고 있다. 즉, 고결한 도덕적 이상이 투영된 전기소설이 패러디되는 양상을 통해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유효하지 않은 세대가 애정전기의 패러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풍자되고

47) 정길수, 앞의 논문, 38면.

48) “朱婆趕後苦懇，未能解惱，轉入房子裡，以手打了生兩頰，大喝道：‘俺一爲柳公子另托，一爲你坎坷可憐，費了許多意匠，幾成了好事，你不能霎時耐笑，俾俺老身，受傷於一任，你其火速自去，更不纏跡了俺門首！’招諸婢推生胸子，放出外門，以鎖鑰堅封了。生無辭稱屈，只得尋路還家，正撞着巡夜卒，綁縛將去，受了棒棍，迨曉歸家，不勝懊懊。”

있다.

덧붙여, 전기소설을 패러디하여 골계미를 자아내는 풍자소설로 비슷한 시기 창작된 『오유란전(烏有蘭傳)』이나 『종옥전(鍾玉傳)』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모략(謀略)에 의한 사랑’ 모티프를 담고 있으면서 애정전기소설에 대한 패러디적 요소나 양상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장수과전』과 얼마간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색장(色莊)한 인간을 풍자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거나 경쾌한 웃음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⁴⁹⁾ 『장수과전』의 패러디는 애정전기소설을 철저하게 뒤집으면서 풍자적인 서사를 좀더 사실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오유란전』의 이생(李生)이나 『종옥전』의 종옥이 망신을 당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장수과는 최광과 사통(私通)한다는 죄목으로 실제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절치부심하는 것이다.

3.3. 백화소설의 창조적 수용

작가 이현기는 평소 다양한 소설을 섭렵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리총화』 내 『패관이지(稗官移志)』라는 짤막한 글에는 그가 먹고 지는 것을 폐하면서 서까지 패관(稗官)을 읽었었는데, 결국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어투에 진력이 났다는 기록이 보인다.⁵⁰⁾ 여기서 ‘패관’은 소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특히 조선 후기의 명칭 소설 열독(熱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백화소설을 탐독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장수과전』, 『채생기우(蔡生奇遇)』, 『포천이문(抱川異聞)』 등 여러 작품에서 발견되는 백화소설의 문체적 영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⁵¹⁾

『장수과전』이 백화소설의 기법을 활용한 양상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

49) 박희병, 앞의 책, 102면.

50) “내가 패관(稗官)을 매우 좋아하여 열람한 것이 많았는데, 심지어 먹고 지는 것을 폐하면서 읽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것들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으니, 설의(設意)나 조사(措辭)가 하나의 인판(印版)으로 찍어낸 것 같아서 겨우 1권만 봤는데도 전질을 이미 다 짐작할 수 있었으며, 안배와 순서는 더욱이 신기한 것이 없었다(余嗜嗜稗官, 多所閱覽, 至於忘寢廢食, 而久乃厭之. 設意措辭, 都是一印版來, 纔看第一卷, 已料得全帙, 排鋪更不神奇).” 『稗官移志』, 『綺里叢話』.

51) 『장수과전』에 보이는 백화소설의 문체적 영향이 19세기 명칭 소설 열독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기리총화』 내 기타 작품들에서도 백화가 구사되었음을 김수영의 앞의 논문(168~171면)에서 밝혀졌다.

에서 간략하게 지적된 바 있다. 먼저 평비에 대해 말하자면, 본디 평비는 비평가가 붙이는 것이나 『장수과전』에서는 작가가 비평가로 나서 독자에게 작품 해설을 하고 있는바 특히 과거로 설정된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에서 현재적 의미를 일깨운다.⁵²⁾ 또한, 앞서 패러디적 특성과 함께 논의하였듯이 작가는 서술자의 평어를 통해 주인공 장수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풍자적 어조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이 백화체를 전면적으로 구사한 것은 구어의 기분을 내고,⁵³⁾ 투박하고 비속한 정경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데 기여한다.⁵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현기는 백화소설의 문체나 기법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당면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작가가 백화 소설의 모티프나 대사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몇 국면을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금병매』 매과의 모티프를 활용한 경우를 살펴본다.⁵⁵⁾ 『장수과전』의 창작 배경에는, 백화소설 중에서도 특히 『금병매』의 독서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선 세간 정리[世情]의 풍자적 묘사라는 전반적인 작품의 정조(情調)를 미루어 유추할 수도 있으나,⁵⁶⁾ 결정적으로 주씨 노파가 『금병매』 속 왕씨(王氏) 노파의 말을 변개하여 활용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이 대목에서 주씨 노파를 왕씨보다 더 뻔뻔한 인물로 내세움으로써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화한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 『금병매』 매과의 대사가 『장수과전』에 어떻게 인입되었는지 살펴도록 한다.

52) 임형택, 앞의 논문, 23면.

53) 김수영, 앞의 논문, 169면.

54) 이승현, 앞의 논문, 86면.

55) 이문(利文)에 눈이 먼 매과 모티프는 야담에서도 종종 보인다. 예컨대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於野談)』 소재 『북장비사(北牆秘事)』에서도 한 비단 장사가 아리따운 여인에게 반하여 그녀의 유모에게 비단을 뇌물로 바쳐 결연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수과전』의 매과는, 피를 내어 남편의 결연을 이끌면서 전적으로 작품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금병매』의 왕과와 근접한 면모를 보인다. 이처럼 “피주머니 매과”가 서사를 주도하는 양상은 『절화기담』에서도 보이는데, 실제로 『절화기담』의 편찬자는 작품 내 매과를 『금병매』의 왕과와 비견하고 있다(정길수, 앞의 논문, 43면).

56) 『금병매』는 세간의 정리[世情]를 빼어나게 묘사한 풍자소설로 평가된다(루선, 『중국소설사』, 조관희 역, 소명출판, 2004, 459면).

“비록 능연각(凌烟閣)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할멈의 계략은 정말로 절품(絕品)의 묘책이야!”⁵⁷⁾

왕 노파는 탕아 서문경(西門慶)과 그 첩 반금련(潘金蓮)의 매개역이며, 인용문은 노파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성사시킬 꾀를 낸 데 대한 서문경의 반응이다. 인용문의 ‘능연각’은 본디 공신(功臣)의 초상화를 그려 걸어놓는 곳이다. 당(唐)나라 태종이 나라의 훈신(勳臣) 24명의 초상화를 그려 올린 이래 뛰어난 신하나 영웅의 반열에 드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여기서 서문경은 유부녀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왕 노파의 계책을 명예로운 능연각 공신에 비견하고 있다. 이 흥미로운 대목은 『장수과전』 서사 가운데 유사한 상황에서 변주되어 나타난다.

“선생은 필경 복이 많은 사람이라 전화위복이 되어 가연(佳緣)을 이루게 되는군요. 그렇지만 이 공덕을 갚자면 나는 응당 능연각 윗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요.”⁵⁸⁾

위 대목에서 주 노파는 최랑과의 가연(佳緣)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장수과에게 알리는데, 처음에는 이를 장수과의 복으로 돌리는 듯하더니 이내 그 공덕은 본인의 지혜 덕이라며 생색을 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묘책이 능연각 윗자리를 차지할 만한 것이라고 스스로 추켜세우고 있다. 인물과 상황 설정의 상동성이 보이거니와 원전의 말보다 한층 과장하여 자신의 공을 드높인다는 점에서 인물의 뻔뻔한 성격이 부각된다.

두 노파는 성격적으로도 탐욕스럽고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공유하나,⁵⁹⁾ 『장수과전』의 주 노파는 장수과를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타락한 원전의 인물보다 한층 타락한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는 장수과에게 “근래 딸을 둔 집에서는 너나없이 재물을 우선시하는 데다 젊은이를 좋아

57) “雖然上不得凌烟閣，干娘你這條計，端的絕品好妙計!” 『金瓶梅』

58) “先生終是厚福，轉禍否極，遂成佳緣。然酬了功德，俺當爲凌烟閣上座。”

59) 왕 노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은자(銀子)이기에 그는 도덕적 판단은 유보한 채 유부녀인 반금련과 서문경을 중매하기에 여념이 없다. 『장수과전』의 주 노파도 장수과를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인물로, 그가 여러 차례 장수과에게 중매에 대한 응분(應分)의 보상을 요구하는 장면은 왕 노파가 자주 은자를 재촉하는 장면과 오버랩된다.

하지요. 지금 선생은 가진 재물은 적고 나이는 많으니 누가 선생에게 딸을 주어 평생 고생을 시키려 하겠습니까?”⁶⁰⁾라며 장수과의 조바심을 이용한다. 어찌 보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일말의 동정도 없이 그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씨 노파는 좀더 악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씨 노파는 자비 없고 이익 추구에 눈먼 세태의 풍자라는 주제의식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금 세상에선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今世難做好人]”는 류순정의 언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삼국지연의』 중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難做好人]’는 장비의 대사에서도 나오는 말로서⁶¹⁾ 류순정이 신진황에게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면서 건넨 말이다.⁶²⁾ 작가는 저명한 백화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되 “지금 세상”이라는 단서를 덧붙여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악한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세계’를 생생하게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4. 『장수과전』의 주제의식

4.1. 몰락양반의 허위와 비루함 풍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장수과전』은 다양한 장르의 문예언어를 패러디하거나 수용함으로써 작품을 ‘복합 양식’으로 창출해내며, 이른바 ‘언어적 다양성’을 구현한다.⁶³⁾

60) “而凡今有女之家，皆以財物爲先，妙年相尙。今先生少其財而多其年，孰肯嫁與先生，以吃一生苦楚”

61)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제14회에서는 여포(呂布)를 죽이지 않으려는 유비(劉備)에게 장비가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소!(難做好人!)”라고 하는 대목이 보인다.

62) 『장수과전』에서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활용된다: “신진황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렇게 되면 장생은 너 한 사람으로 인해 된서리를 만난 셈이 아니냐. 네가 그와 무슨 조상 대대로 원수를 진 사이도 아닌데 어찌자고 그렇게 모질게 군단 말인가. 하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신진황은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이다.] 류순정이 말했다. ‘**지금 세상에선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 너는 이 말을 결코 누설하지 마라. 저놈이 안검(按劍)의 환(患)을 지을까 걱정되는구나.’”(“晉瑣怒道: ‘然則張生由你一人荐逢霜雪, 你非其世讐, 胡至此極. 天不祚你. 天不祚你.’ [晉瑣一是老實.] 順汀道: ‘**今世難做好人.** 你只是勿泄此言, 使這廝有按劍之患.’”)

『장수과전』은 이처럼 소설 기법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서사를 흥미진진하게 이끌고 있지만, 기실 그 서사의 구심점에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풍자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풍자의 주된 대상은 주된 대상은 낡은 가문의식에 집착하여 화를 자초하는 장수과라는 뻔뻔한 인물이다. 작가는 류순정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가 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시종 그를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함으로써 그를 풍자하고 있다. 그런데 제2장에서조차 살폈듯이 장수과는 한편으로는 딱한 인물이며, 그에게 가해지는 시련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그럼에도 작가는 왜 끝까지 그의 ‘빌붙어 먹음’과 ‘허위의식’을 회화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까?

먼저 장수과의 기생적(寄生的) 행태는, 그 저변에 깔린 의미를 숙고해보건대,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시하여 남의 상황은 배려할 줄 모르는 그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장수과가 빌붙으려 하는 사람들은 “태반은 가난뱅이요, 개중에는 장가도 들지 못한(太半是貧窶的, 或有未娶的)”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장수과는 자기 자신에 골몰한 나머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연민의 감정을 갖는 대신 오로지 재산을 조금도 축내지 않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바로 이 이기적인 탐욕에 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는 ‘사(士)’로서의 미덕은 없으면서 끊임없이 가문의식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허위의식을 보인다. 그는 과수를 재배하여 생계를 꾸리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인물로서,⁶⁴⁾ 경제적으로는

63) 즉 『장수과전』은 야담의 생기 있는 비속적(卑俗的) 구어체(口語體)와 함께 열전의 문인적 교양, 전기소설의 섬려(纖麗)한 문체, 그리고 외국어인 백화소설의 평속(平俗)한 미감, 평비를 통한 작가의 비판적 해설을 섞어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언어를 담아낸다. 전기소설과 야담의 문체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책(1997, 100~101면) 참조. 잘 알다시피 바흐전은 소설 속에는 다양한 ‘언어들’과 언어·이념적 신념체계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소설에서는 장르별, 직업별, 계급·이해집단별로 각기 세분되는 언어가 소설에서는 섞이게 된다(미하일 바흐전,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진승희 역, 창작과 비평사, 1998, 124면).

64) 과일나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상업적 형태는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동환의 『조선 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 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5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3년, 168면)의 다음 대목이 참조된다. “과일나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층들도 생겨났다. 인왕산 기슭 누각동이나 이화동에는 살구나무, 교북동에는 살구, 복숭아, 감나무, 창신동에는 복숭아, 앵두나무, 세검정에는 자두나무가 많았고, 동숭동에는 잣나무가 많아서 잣골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18세기에는 각종 화초나 분재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길러 판매하는 자들도

시대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아내를 얻어 종사(宗嗣)를 세우는 것’, ‘조상의 묘소를 번듯하게 가꾸려는 것’에 집착하여 화를 자초한다. 즉 장수과는 해체되어가는 봉건적 신분제에 스스로 편입되고자 허세를 부리면서 타인을 깔보고, 이들을 수단으로까지 삼는다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몰락양반(65)은 『장수과전』 뿐 아니라 『기리총화』 소재 여러 작품은 물론, 여러 야담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재로서, 대체로 시대적 변화에 기민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중인층이나 노비들과 대조되는 존재로 제시된다.⁶⁶⁾ 몰락양반의 등장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한 사(士) 계급의 분화라는 당시의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시정 세계와 민간적 사유를 그 세계관의 근거로 삼는 야담의 속성상 풍자의 대상으로 삼기 쉬운 존재이다.⁶⁷⁾ 말하자면 『장수과전』에 보이는 ‘몰락양반’에 대한 풍자정신은 기본적으로는 야담계 소설에 내재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수과전』의 경우처럼 몰락양반이 맞은 위기와 그 내적 분열을 절실하게 그려낸 작품은 흔치 않다.⁶⁸⁾ 작가는 장수과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종사(宗嗣) 끊길 위기’에 암유(暗喻)하면서, 제 한 몸 건사하지 못하면서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공허한 소망, 남에게 기생하여 제 이득을 챙기려는 삶의 태도를 문제시한다. 게다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에 종사하면서

생겨났다. 이처럼 18세기 상업적 농업은 채소류나 약초류에 그치지 않고 과일과 꽃 재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65) 장수과가 실제로 양반이었다가 몰락했는지, 혹은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으로 자처하는지는 작품 내에서 분명치 않게 나타난다. 다만 현재까지 ‘몰락양반’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쓰여 왔으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몰락양반’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66) 『기리총화』에서는 대표적으로 『채생기우(蔡生奇遇)』와 『최승선전(崔承宣傳)』을 예로 들 수 있다. 『채생기우』는 부유한 중인 김령(金令)이 재치를 발휘하여 자신의 딸을 가난한 양반 채생과 결혼시키는 이야기이며, 『최승선전』에는 몰락양반 송생(宋生)이 과거에 노비로 두었던 막동(莫同)에게 도움을 받아 경제적 곤궁을 면한다는 내용이다. 몰락양반은 역관이나 노비 출신의 신흥부자는 비해 초라하고 우월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67) 이상 야담의 세계관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책, 94~95면 참조.

68) 『기리총화』에는 『장수과전』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귀객』이 있다. 『귀객』에는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기식하는 몰락양반에 대한 풍자가 환상적인 비유를 통해 나타난다(박희병, 『청구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29면). 비슷한 문제의식을 『장수과전』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와해되어 가는 신분제에 집착하는 그의 허위의식을 풍자한다.

이에 더하여, 그의 허황된 꿈을 부채질하여 과멸로 이끄는, 영락한 무반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일군의 몰락양반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비열하고 관용 없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장수과를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류순정은 조그만 이해에 집착하며 사(士)로서 가져야 할 미덕을 결여하고 있는데, 그 또한 장수과와 다를 바 없는 졸렬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의 일당이 장수과를 속이려고 다 함께 ‘알몸으로 머리를 풀고 나무 위에 모여 앉아 장수과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은, 바로 사소한 원한을 갚기 위해 체면 불고하고 해피망측한 일을 불사하는 한 무리의 소인배의 초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양반층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장수과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신분의식에 집착한 나머지 화를 자초하는 한 인간의 초상을 그려내는 것은 물론, 그가 다른 양반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를 괴롭히면서 집결하는 한량들의 모습 등을 통해 당시 몰락양반 내부의 동향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야담들에서 몰락양반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 같다가도 결국 그들의 꿈과 원망(願望)을 성취시키는 것과 달리, 『장수과전』은 몰락양반의 실태를 가감 없이 반영함으로써 그 현실적 상황을 일깨운다. 즉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 몰락양반의 현실적 좌표를 정확히 인식하여 이를 소설 속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그 허위의식과 왜소성을 풍자하는 것이 『장수과전』의 주요한 주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4.2. 무자비한 사회, 속물적 세대 비판

『장수과전』의 특징은, 초라하고 비루한 주인공 장수과를 비롯하여 모든 인물이 현실에 존재할 법한 소인(小人)의 형상으로 제시되며 이들이 사는 세계는 무자비한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본디 허구적 축조물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상과 꿈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정 세계와 민중의 발랄한 상상력, 그리고 지식인의 원망(願望)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야담계소설은 대개 절륜(絶倫)한 재주나 훌륭한 미덕, 혹은 남다른 현실

적 대처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적어도 한 명 짝은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장수과전』에는 이와는 달리, 오히려 소인배의 형상을 전면에 내세운다. 여기서 이 작품이 전 양식과 애정전기소설의 ‘패러디’를 통해 인물들을 풍자하거나 속화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디 패러디란 원전에서 추구하는 가치 자체에 회의적이다.⁶⁹⁾ 그러므로 『장수과전』의 세상은 훌륭한 행적이 있는 전적(傳的) 인간도, 순전한 사랑만을 지상 목표로 하는 전기적(傳奇的) 인간 자체를 회의하는 곳이다.

장수과가 받는 수모는, 또 다른 몰락양반의 소인배적이고 무자비한 면모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자신 또한 몰락양반의 처지에 있는 류순정⁷⁰⁾이 이끄는 이들 인물들은 넓은 아량을 베푸는 대신 조그만 손해를 아까워함으로써 장수과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류순정은, 앞서 살폈듯이 말싸움에서 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장수과를 몰락시키려 하는 속 좁은 인물이다. 이로써 『장수과전』에는 장수과를 풍자하는 인물이 함께 풍자되는 이중 풍자가 이루어지고,⁷¹⁾ 그저 그런 소인배들로 가득한 세계가 묘사된다. 특히 류순정은 장수과를 동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냉소를 보내며, “저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비탄에 잠겨 죽어가고 슬픔에 병이 든들 나에게 무엇이 해가 되어 빈말로나마 저를 위로할 까닭이 있겠느냐?(這廝雖終年鬪歲, 悲死愁病, 於俺何傷, 而用謊說慰他麼?)” 라는 말을 하며 자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장수과전』이 다루고 있는 인물은 결합 많은 장수과, 장수과의

69) Arthur Pollard, 『풍자』, 송낙헌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37면.

70) 류순정은 여기서 본디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산(家産)을 탕진하여,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무반이 되고자 하는 몰락양반으로 등장한다. 한편, 이는 실존인물 류순정(1459~1512)의 실제 삶과는 차이가 있다. 류순정은 1487년 별과(別科)에 장원으로 합격한 이래 두루 요직을 지냈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문인(文人)임에도 활을 잘 쏘아 무인(武人)들 중에서도 대적할 이가 드물었다고 한다.

71) 몰락양반을 이와 같이 이중 풍자하는 양상은 『기리총화』의 『귀객(鬼客)』이라는 작품에서도 환상적인 비유를 통해 나타난다.

『귀객』은 남에게 의탁하여 사는 몰락 양반인 심생이, 집에 들어온 굶주린 귀신 때문에 고통을 한다는 이야기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작품 속 굶주린 귀신들은 남에게 기식하는 몰락 양반을 환상적으로 반영한 존재로서 또 다른 몰락양반인 심생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박희병, 앞의 논문, 1981, 129~130면). 이 연구는 『청구야담』에 실린 『궤반탁견곤귀매(餓飯卓見困鬼魅)』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추후에 『궤반탁견곤귀매』의 원전이 『귀객』임이 밝혀졌다.

인간적 결함에 비해 지나치게 악랄하게 대응하는 류순정, 장수과에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대세에 따라 모략에 가담하는 벌열가의 자제나 한량(閑良) 무리, 한 인간의 곤액(困厄)을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 사랑마저도 경제적 계산에 따라 이루는 남녀, 그 사이에서 손익을 저울질하여 이익을 취하는 중매쟁이 노파뿐이다. 즉 『장수과전』은 각계각층 인물의 박덕(薄德)한 모습을 통해 19세기 조선에서 인간이 당면한 척박한 현실을 희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인물로서 신진황이 있어 그의 역할에 대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는 작중에서 유일하게 이성(理性)을 지닌 인물로 류순정이 악랄한 계획을 꾸밀 때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에 류순정은 항시 그럴 듯한 이유를 대는데, 이로써 그의 악행은 나름의 설득력을 얻게 된다. 즉 신진황의 질문은 잠시 휴지(休止)를 주되 이내 서사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만류는 통하는 법이 없다. 류순정이 “너는 자비 베풀길 좋아하니 여기 혼자 남아서 성불(成佛)이나 하여라. 우리들은 저의 과수원으로 가서 맛있는 과일을 실컷 따먹으려다(你好慈悲, 留此成佛. 俺們且從那園裡, 飮了好果)”라고 하면서 무리들과 장수과의 과일을 도둑질하려 간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일한 이성적 인간 신진황의 존재는 거꾸로 세태의 무자비성을 부각시킨다.

즉, 작가는 결함 많은 문제적 주인공 장수과 뿐 아니라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한적 인물들 및 그들을 둘러싼 인간 군상 모두를 향해 풍자적 시선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이들이 ‘비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각자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골몰하여 서로에게 자비를 허용하지 않는, ‘속물적 세태’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풍자 의식은 류순정이 악행을 만류하는 신진황에게 “지금 세상에선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今世難做好人)”라고 한 말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지금 세상’은 단지 소설 내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익 추구가 만연한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속물적 세대에서 산생된 장수과, 류순정, 여러 한량 등을 등장시키고 그중 특히 균형을 잃은 인물 장수과에게 정벌을 가하는 과정을 생생

하게 그려냄으로써 당대 독자에게 반성적 사유를 촉구하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고찰에 비추어 볼 때 『장수과전』의 문제의식은 당시 변화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산생된 새로운 인간형과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낯선 인간형이나 인간관계의 새로움은 속물적인 욕구 앞에서 무자비하게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세속적 욕망을 긍정적인 견지에서 다루는 여타 야담 작품에 비해 경계의 뜻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유교적 청빈(淸貧)이라는 이념을 설파하는 방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적 관계가 물질적 가치에 의해 훼손되는 사회상 즉 속물주의적 세태에 대한 반성적 통찰을 담고 있다.

이처럼 타락한 인물들의 초상을 통해 문제적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은 여타 야담계 소설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으며, 이는 다시 서사의 ‘형식’과 관련하여 고찰을 요한다. 『장수과전』은 야담계 소설에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 상술한바 작가가 작품의 편폭을 확대하면서 열전이나 전기소설 등 동아시아의 전통적 장르를 ‘자각적으로’ 패러디하고, 이에 더하여 당대 동아시아 서사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백화소설의 소설적 기법을 창조적으로 변용하였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여러 서사 전통이 활용된 양상은 대상과 세계를 비속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위에서 살핀 작품의 주제의식과 긴밀하게 조응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장수과전』의 실험적인 형식은 서사를 재미나게 이끌어 나가는 데 그칠 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을 비루하고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주제의식을 심화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대체로 낙관적 전망을 담고 있는 야담계 소설들과 달리 “파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형식의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혹은, 반대로 작가가 주제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분명한 것은, 작가가 야담의 장르적 가능성을 심본

활용하는 한편 여기에 다채로운 문학 양식을 접합함으로써 새롭고 이채로운 소설을 창작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19세기까지 축적되었던 야담계 소설의 성취와 역량, 그리고 다채로운 동아시아 보편의 서사 양식들의 발전이 결출한 문학적 역량을 갖춘 작가 이현기의 문제의식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빚어진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작품은 그 자체로서 빼어난 문예성을 성취했을 뿐 아니라 야담계 소설의 지평을 넓힌 소중한 사례로서 문학사에서 주요한 입지를 점한다.

한편, 본고는 『기리총화』의 여러 작품들과의 비교적 고찰 속에서 『장수과전』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장수과전』의 문제의식은, 동일한 제재나 주제를 작가가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함께 살피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李玄綺, 『綺里叢話』, 임형택선생소장본.
임형택 편, 『한문서사의 영도』 하, 태학사, 2012.
笑笑生, 강태권 역, 『金瓶梅』, 2002.
羅貫中, 황석영 역, 『三國志』, 창작과 비평사, 2003.

2. 단행본

-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박희병, 『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루 신, 조관희 역, 『중국소설사』, 소명출판, 2004.
방정요, 홍상훈 역, 『중국소설비평사략』, 을유문화사, 1994.
Bergson, Henri, 김진성 역, 『웃음-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1983.
Mikhail, Bakhtin, 전승희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98.
Muecke, D.C.,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ollard, Arthur, 송낙헌 역, 『풍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Shelston, Alan, 이경식 역, 『전기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3. 논문

-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5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3, 149-175면.
김수영,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白話) 수용 양상』, 『국문학연구』29, 2014, 151-177면.
김영진, 『『기리총화』에 대한 일고찰-편찬자 확정과 후대 야담집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28, 한국한문학회, 2001, 315-348면.
김엽선, 『조선후기 우화소설 『두껍진』의 구비문학적 특성』, 『고전과 해석』,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65-100면.
박희병, 『청구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이강욱, 『〈두껍진〉의 말하기 전략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125-162면.

- 임형택, 『『기리총화』 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학사연구』11,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281-324면.
-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58, 대동문화연구원, 2007, 9-42면.
- 이승현, 『『기리총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길수, 『『절화기담』 연구: 19세기 애정전기 전통의 계승과 변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명기, 『야담연구를 위한 한 제언』, 『열상고전연구』10, 열상고전연구회, 1997, 127-153면.
- 정선희, 『조선후기 소설비평론과 문예미학의 발전: 김성탄의 소설평비본 독서와 관련하여』, 『어문연구』35, 한국어문어교육연구회, 2007, 209-233면.

A Study of Narrative Formation and Themes in *Jangsugwajeon*

Chung, Sol-mi

This study examines the themes of *Jangsugwajeon*(張守果傳), a 19th century novel, based on it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The narrative structures of *Jangsugwajeon* include 'competing with words' and 'deceiving'. As for characteristics, there is a parody of various genres, such as chronicle, fictional biography. Moreover, the author creatively accepts some forms of vernacular novel to emphasize his critical consciousness. Throughout such diverse ways, the author induces pleasant laughs, while he also keeps an intellectual distance from every single character.

Accordingly, *Jangsugwajeon* can be considered a satirical novel. The target of satire is not only Jangsgwa, a fallen aristocrat who obsesses over the hollow notion of family, but also various types of human beings who drive him into catastrophe. By doing so, this work portrays a world full of little minds and implies that there exist a cold-hearted society, a snobbism that make people so dishonorable.

As such, *Jangsugwajeon* sheds light on the cold-blooded and dirty sides of the world rather than the bright sides, reenacting the reality at the same time. In that sense, *Jangsugwajeon*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Yadam[野談] novel as well as from other contemporary satirical novels.

keywords: Kirichongwha(綺里叢話), Jangsugwajeon(張守果傳), Satire, Realism, Vernacular novel, 19th century Chosun, Fallen aristocrat, Snobbism.

접수일자: 2015. 3. 31.
심사기간: 2015. 3. 31.~2015. 5. 10.
게재결정: 2015. 5. 10.

